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찬양예배 시 교회학교 성탄축하 특별행사
25일(월) 새벽 5시 - 성탄새벽예배
25일(월) 오전 11시 - 성탄축하예배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먼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성탄축하 특별행사가 있습니다. 내일 25일(월) 새벽 5시에는 성탄새벽예배를 드리며 오

전 11시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리는 성탄축하예배가 있으며 성탄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탄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주일) : 10시 30분 송년음악회
11시 30분 송구영신예배
1월 7일(주일) : I·II·III부 예배 시 신년감사예배·성찬식
찬양예배 후 예·결산 승인 공동의회

2024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2023년 12월 31일(주일) 오후 10시 30분 송년음악회로 시작하여 11시에는 소등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예배가 손달익 위임목사님의 인도로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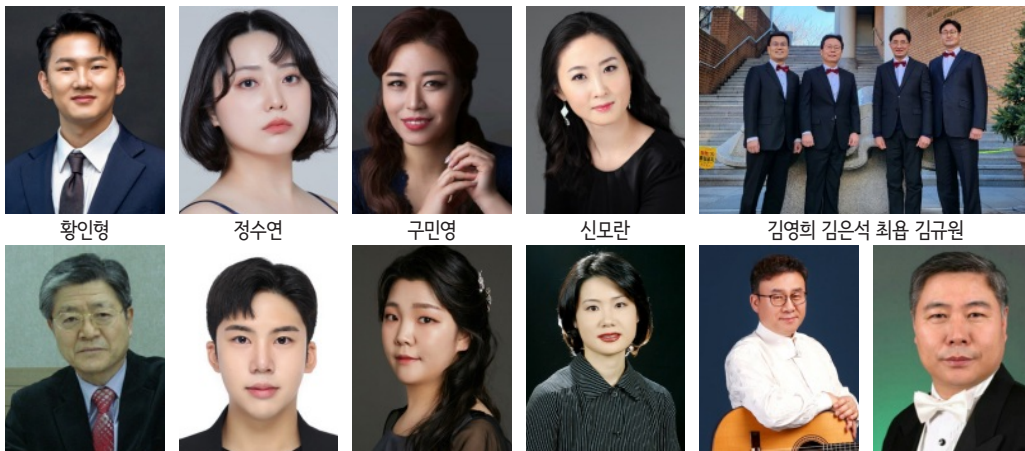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11시 소등이 되

기 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첫 주일인 1월 7일(주일)은 신년감사예배로 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가지며 신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찬양예배 후에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결산 승인을 위해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2023년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 송년음악회 출연진



황인형

정수연

구민영

신모란

김영희 김은석 최음 김규원

안선광

강석범

전지희

이경옥

장윤식

유충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크리스마스
빵 나눔**

사라전도회(회장: 김인숙 권사)는 25일 성탄축하예배 후 크리스마스 빵을 나눕니다.
큰 기쁨을 주신 사라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성경통독 시상 접수

교회는 성경통독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연말 성경통독 시상을 합니다. 성경통독을 마친 성도들은 교구 간사나 다락방장을 통해 알려주시거나, 2층 본당 앞에 비치된 '성경통독 수거함'에 성경 읽기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성경통독 시상품]

- 1독: "백 년 믿음으로 바라본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 2독: 1독 상품+"예수처럼 리드하라"
 - 3독 이상: 2독 상품+"이스라엘의 역사"
- [1가족 다독의 경우]
1-3독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준홍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사랑과 구원의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는 사랑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축복된 은총의 계절에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 위에 구원과 사랑을 주시러 오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지구촌 곳곳마다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가 된 나라들이 많고, 여전히 전쟁과 굶주림, 기근, 각종 질병으로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날입니다. 때문에 이 탄생에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무한 희생이 내포된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음의 몇 가지 신앙실천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요 1:14)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마 1:23)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지닌 사람이 되셨고,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마 28:20) 우리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위해 모든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롬 8:34)이심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계절이 낭만적 즐거움을 누리는 계절이 아니라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시고 보여 주시게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요 14:9)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요 6:38, 9:4)고 하였고 '보내신 이의 교훈을 말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실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실천은 모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가르침과 사랑 실천이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는 우리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절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 사람들이 예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는 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자기 비하와 비움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성육신적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더 낮은 곳의 이웃들을 살피고 혼자 힘으로는 냉수 한 그릇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 시대의 나사로들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꺼이 우리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이웃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삶의 용기와 꿈을 가지도록 돕고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성육신 신앙을 본받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도 서울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첨단 문명에는 타락한 세속 문화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는 적지 않은 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랑의 선물을 안고 더 낮은 곳의 이웃들에게로 찾아가는 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유희의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경건한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갱신, 복음 전도, 사랑 실천의 성탄절 본래의 의미를 실천해야겠습니다.





성탄절에

조한나 권사 (3교구, 시인)

주님 오신 날
하얀 눈발 속에서
기쁜 소리 들립니다

죽었던 것들이
보채는 세상을 감싸주며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침탑에 번쩍이는 십자가
그 아래 영화를 나타내는
불이 환히 켜져 있습니다

사갈의 하얀 십자가
다시 열립니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온 백성 한 입 모아
주님 태어나신 날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신 날
하얀 눈발 속에서
승리의 노래가 들립니다



Merry Christmas!

2023년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하신 주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우신 가운데 선교지를 도우신 서울교회 손달의 위임목사님 그리고 기도로
도우신 선교부와 도교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성탄 감사 인사 올립니다.

한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마지막달에 성탄절이 있음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
하는 순간에 먼저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방글라데시!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받으시고 방글라데시가 복음의 땅이 되어가며
하나님의 소망의 땅이 되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사랑하는 서울교회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শুভ বড়দিন সুভে বোরদিন (Merry Christmas)

방글라데시에서 조남혜 선교사와 소망의 아이들이 성탄을 감사하며 올립니다.

인도에서 드리는 성탄예배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
생인 성탄절을 맞아 서울교회 위임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 교회에서도 성탄절 트리과 깜빡이 등을 켜놓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든 일이 많고 삶의 도전도 있지만, 예수님
이 주시는 구원의 지혜와 힘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것을 믿습니다. 귀한 성
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도에서 조범연 선교사





방글라데시에도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
방글라데시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비록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어도
가진 것이 풍족하지 않아도
동방박사처럼 드릴 예물은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
구원과 소망을 심어 주신 예수님께
뜰 앞에 피어난 꽃 한송이 들고
주 나심을 축하합니다
2023년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서울교회 손달익 목사님,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경엽·송은 선교사 올림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즐겁고 뜻있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서울교회 손달익 위임목사님과 당회, 선교위원회, 인도 기도팀, 성도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도와 한국, 온 누리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널리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와 인도 아가페교회, 한국교회와 열방교회들이 성탄예배와 축하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도 선교사 우상식·김정옥 올림



이 먼 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사랑과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먼 곳 000에서 인사드립니다.

겨울이 우기인 이곳은 거의 매일 비가 오며 흐린 날 들입니다. 동북 지역은 눈이 오고 서남 지역은 눈대신 비가 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기도를 부탁하려 합니다.

첫째, 황무지 같은 이곳 사람들은 마음도 메마르고 딱딱하기에 생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성탄예배 초대장을 나누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옥토 발이 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길 소원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탄을 맞이하면서 00000교회 주위에 사는 어려운 스물 다섯 가정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려 합니다. 육적 도움만이 아니라 영적 도움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후 온 맘과 정성과 힘 다하여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지친 마음이 있어도 구원해 주신 은혜 안에서 넉넉히 맡기신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와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먼 곳의 한 모퉁이에서 Grace올림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 모금행사

내년 2월에 출발하는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 후원금 모금을 위한 커피판매 모금행사가 8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필리핀 도시빈민 어린이들에게 후원할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식사 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채승호 집사
(2024 청년부 비전트립 총무)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까지 하십니까? 나 더러 어찌라는 말입니까?”

제가 1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들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던 2015년에 회사가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베트남을 자주 왕래하게 되었고 베

트남은 저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체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베트남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비전트립에 동참하는 나의 사역이 시작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올 여름 청년부 카이로스 비전트립 훈련에도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비전트립에 동참하는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 영적, 상황적 준비를 인간적인 의지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1년 동안 많은 외부적인 환경들과 내부적인 사정으로 베트남이라는 땅으로 가는 것이 묘연해지는 듯이 느껴지기 시작했

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의지가 없는 나약함을 1년 동안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밀바닥으로 끌어내리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답답함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 하반기에 한마디 한마디를 말씀으로 주시며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실패로 내가 일한 단다. 나를 의지하렴. 내가 내 아들이 잘못되는 걸 바라지 않는단다.”라는 말씀을 복음서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더러 어찌라는 말입니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 분명히 명령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필리핀 비전트립팀의 총무라는 직책으로 부르셨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분명히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비전트립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처한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함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저는 갈 준비를 다할 뿐입니다. 시키신 일에 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비전트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전해주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전하러 가는 이 비전트립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서울교회에 필요한 선물 보따리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비전트립지에서 저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질문의 답을 알려주실까요? 그 답을 구하러 저는 이 비전트립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의지의 실패를 경험한 약한 청년이 이제 주님의 명령으로 비전트립지에 가려고 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가난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함께 가시는 비전트립팀 전체를 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소망을 구하는 우리 서울교회를 위하여!

*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후원계좌
3333-04-2401920(카카오뱅크)
예금주: 조재석

교회 회복의 추이를 짚어보며 교회 부흥을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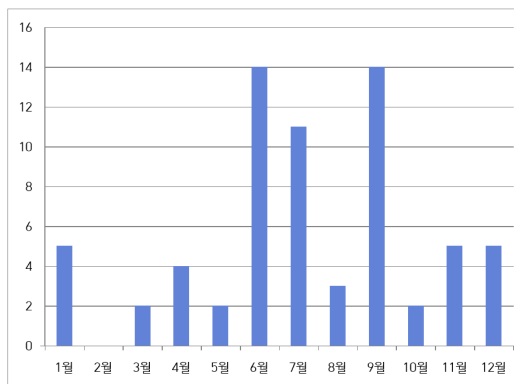
지난 12월 17일(주일)에 새가족부(부장:노제현 장로)에서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료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새가족환영회를 가졌습니다.

2023년은 서울교회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70인전도대가 발족되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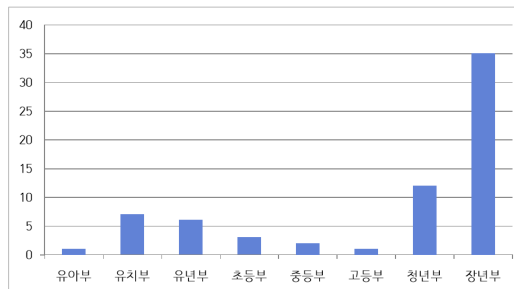
옆의 그래프는 주보기준으로 2023년에 등록된 새가족을 분석한 현황입니다. 새가족은 총 67명으로, 그 중에 본인 등록이 32명(48%), 인도자 등록이 27명(40%), 70인전도대 등록이 8명(12%)입니다.

하나님이 서울교회로 보내주신 새가족이 새가족부 교육을 은혜 중에 마치고 선교회, 전도회, 교회학교, 교구와 다락방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협력하여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애리 권사(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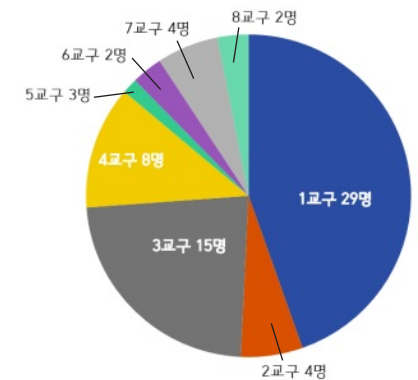
▲ 월별 새가족 등록 분석



▲ 부서별 새가족 등록 분석



▲ 새가족 등록 유형



▲ 교구별 새가족 등록 유형

식사 제공

- 9교구 장애인 권사 (범사에 감사드리며)



지난주일 12월 17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찬양대의 성탄절기 감사찬양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 12월 17일 주일 2부 예배 후 802호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수료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새가족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 전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경건한 성도 되게 하소서.
2. 2023년 베풀어주신 하나님 은혜 위에, 2024년 새로 부어주시실 은혜를 담을 부대를 잘 준비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이 땅에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